

목수가 되고픈 이의 들쭉 사랑하는 마음

故 민병산 선생에 대한 추억

방영웅

소설가

關丙山 선생은 대지주의 만아들이었다. 하루종일 아무리 걸어도 내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일제 때 자가용이 있었고, 자당님께서 시집오실 땐 지참금으로 쌀 오천석을 가져오셨고... 이 정도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그의 부친은 대지주가 대개 그렇듯 호화방탕한 생활을 했던 듯 하지만 민선생은 부친과는 전혀 다른 일생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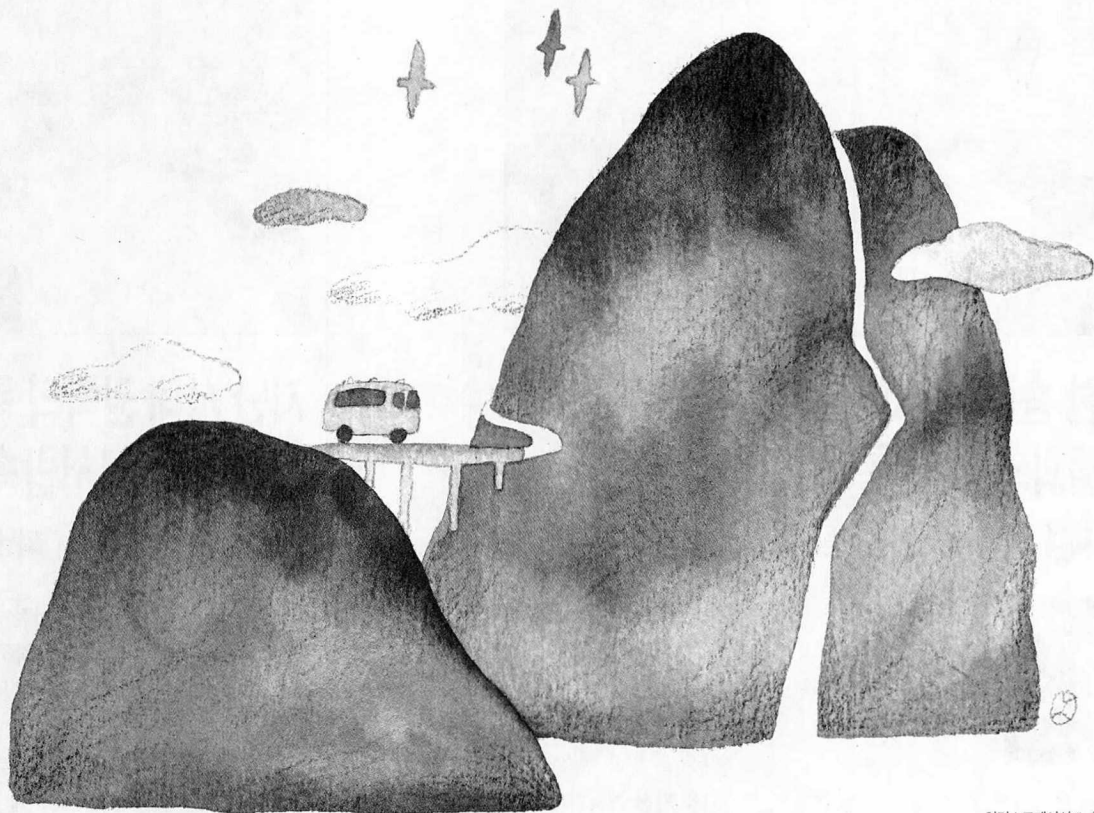
그가 보성중학에 다닐 때 무슨 독서회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고향인 청주에서 붙잡혀 서울로 연행될 때, 그는 내내 기차칸에서 평화스럽게 잠을 잤다는 것이다. 그를 연행해가던 형사는, 그놈 참 무던하다고 하면서도 혀를 내두르더라는 것이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다. 필자가 알기로는 사회과학쪽엔 별 관심이 없고, 예술·문화분야, 특히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민선생은 그 방면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 많은 자료를 모아 놓고 있었다. 출판할 계획도 세웠지만 자료를 분실했던 것은 애석한 일이다. 말년의 민선생은 무척 가난하여 셋방을 전전했는데 책을 보관할 수 없어 친구네 집의 창고를 빌게 되었다. 책이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누가 트럭을 몰고 와 몽땅 실어갔다. 위인전기의 자료도 그때 함께 없어졌던 것이다.

필자가 민선생을 알게 된 것은 60년대말 문단에 등단했을 때지만 그 분과 각별하게 지낸 것은 그로부터 십년 후, 관철동 한국기원에서였다.

그 무렵 민선생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한국기원에 들르곤 했었다. 저녁마다 술판이 벌어졌다. 민선생은 술은 전혀 못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돈이 없는 사람도 관철동에 나오기만 하면 술은 마실 수 있었다. 민선생 덕분에 아직도 관철동에 낭만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술값은 주로 민선생이 지불했다. 그 분은 원고료로 받은 돈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원고 쓰는 일을 그만두고 붓글씨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 분의 호주머니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난 장인이 되고 싶어. 집 짓는 목수, 얼마나 좋아. 내가 젊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는데...”

민선생은 이런 말을 하더니 어느 사이 서예를 시작하고 있었다. 건강도 좋지 않은 터에 원고 쓰는 일에 진저리가 나는 것 같았다.

민선생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한두점씩 자신의 글씨를 나누어 주었다. 일취월장하는 자신의 서예솜씨를 알리기 위하여 글씨를 받아간 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다시 주고 또 다시 주었다. 민선생이 살아 계실 동안 서예전이 두번 열렸고, 작년 4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서예전이 열리기도 했다. 지금도 인사동 어느 찻집이나 가게에 들르면 그 분의 붓글씨를 쉽게 대할 수 있다.

민선생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독서와 사색으로 일관한 분이다. 그러나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한쪽다리를 저승에 놓고 사는 사람여.” 민선생은 언젠가 이렇게 말하며 웃었는데 건강 탓일지 모른다.

필자는 민선생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한번 있었다. 행선지는 경남 거창, 그곳에 99간짜리 기와집에 사는 우리의 친구가 있었다. 오후에도 먹고, 친구의 집과 덕유산 일대의 경관을 구경하기 위하여 떠난 것이다.

서울에서 김천까지는 기차를, 김천에서

거창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민선생은 김천에 당도할 때까지 차창 밖은 내다보지 않은 채 일본어로 된 조그만 책을 들고 그것만 읽고 있었다. 무슨 책인가 알아봤더니 곤충에 관한 책이었다.

“육이오 때 김천으로 피난을 왔으니 김천까지 와봤지. 차창 밖을 내다보기 싫어 이걸 가져왔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요즘엔 웬일인지 곤충이라든지 이름 모르는 들꽃 같은 작은 생명에 대하여 강렬한 정이 느껴진다 말여.” 했다. 그렇다. 민선생은 유난히 중국의 화가인 치백스(齊白石)의 그림을 좋아했다. 언젠가 민선생으로부터 치백스의 조그만 화집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다. 그의 전각솜씨도 놀라웠지만 잠자리, 개, 개구리 등의 그림은 정말 경탄할 만큼 아름답고 치밀했던 것이다.

김천역에서 내려 버스 대신 택시를 타게 되었다. 김천과 거창 사이의 도로는 포장도 잘 되어 있는 듯 했으나 군데군데 파손되어 있었다. 장마통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다. 도로 옆으로 흐르는 냇물 위에 세워진 현대식 콘크리트 다리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하나하나 세어보았지만 다리는 열댓 개 정도 되는 성이었다. 그 중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몽땅 무너져버렸으니 얼마나 놀랍고 허망한 일인가.

그런데 택시가 얼마동안 달렸을 때 멀쩡한 다리 하나가 보였다. 저 다리는 어떻게 되어 멀쩡한가, 운전기사에게 물어보았다. 그 다리는 일제시대 때 놓은 다리라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먹장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다. 일제 때 건설된 수십년 된 다리가 저토록 견고하게 서 있는데 작년인지 재작년에 건설했다는 그 다리들이 강그리 무너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번 건설중이던 성산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필자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민선생과 함께 거창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었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는 민족을 잇는 다리 하나마저도 건설하지 못하는 형편에 여기저기에 건설한 다리들이 날림공사로 저 지경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저 지경이니...

그런데 민선생은 택시기사로부터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도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면역이 된 것일까. 그 분으로서는 오히려 그러는 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였는지 모른다.